GIST, '인권친화 연구실' 인증 3년 성과 한자리에 존중과 소통의 연구문화 확산

- 2024년부터 3년간 선정된 우수 연구실 6곳의 인권친화 문화 실천 사례 공유
- 자율적인 출퇴근·강요 없는 회식·온라인 정보 공유 등 다양한 운영 사례 소개... 2027년 제4회 공모전 추진



▲ '인권친화 연구실 공모전 성과공유회'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. (첫째 줄 첫 번째) 차미령 GIST 인권센터장

광주과학기술원(GIST·지스트, 총장 임기철)은 **11월 12일(목) GIST 도서관 1층 소극장에서 '인권친화 연구실 공모전 성과공유회'를 개최**하고, **지난 3년간 선정된 우수 연구실 6곳의 인권친화적 연구 문화 실천 사례를 공유**했다고 밝혔다.

GIST 인권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연구실 구성원 간 상호 존중과 수평적 소통을 실천해 온 **우수 사례를 원내 구성원들과 공유하고, 건강한 연구실 문화를 확산**하기 위해 마련됐다.

'인권친화 연구실 공모전'은 연구실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건강한 연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4년 처음 시행됐다. 올해로 3회째를 맞았으며, **매년 대상과 최우수상을 선정해 지난 3년간 총 6개 연구실을 인권친화 연구실로 선정**했다.

이날 성과공유회는 **차미령 GIST 인권센터장의 개회사**를 시작으로 공모전 추진 경과 및 성과 소개, 역대 수상 연구실의 인권친화 문화 실천 사례 소개, 질의응답 순

으로 진행됐다.



▲ 11월 12일(목) GIST 도서관 1층 소극장에서 열린 '인권친화 연구실 공모전 성과공유회'에서 차미령 GIST 인권센터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.

우수 사례로는 ▲2024년 대상 '나노표면화학 연구실'(임현섭 교수)과 최우수상 '물안보 연구실'(김창우 교수) ▲2025년 대상 '지능형정보시스템 연구실'(황의석 교수)과 최우수상 '반도체 발광소자 연구실'(이동선 교수) ▲2026년 대상 '지속가능 에너지/전자 소재 및 소자 연구실'(이상한 교수)과 최우수상 '인공지능 법정책 연구실'(박도현 교수) 등 **총 6개 연구실의 인권친화적 운영 사례가 소개**됐다.

수상 연구실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해 온 대표적인 인권친화 문화로는 **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평등한 연구정보 공유, 자율적인 출퇴근, 강요 없는 회식 등**이 소개됐다. 이들 연구실은 구성원들이 필요한 정보에 동등하게 접근하고, 서로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연구 환경을 만들어 왔다.

또한 수상 이후 **새롭게 도입하거나 확대해 온 인권친화적 연구실 운영 사례도 소개**했다.

특히 '인공지능 법정책 연구실'은 수상 이후 **공통의 연구 관심사를 가진 구성원끼리 선후배를 연결하는 '사수제'를 새롭게 도입**하고 있으며, '지능형정보시스템 연구실'은 **음주 없는 회식 문화를 확대**하고 있다. '지속가능 에너지/전자 소재 및 소자 연구실'은 새로운 인권친화 문화 도입을 모색하는 동시에, **기존의 상호 존중 문화를**

더욱 공고히 하는 데 힘쓰고 있다.

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**연구실 구성원 간 갈등 해결 방안**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. 참석자들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, **편안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 문화가 갈등 해결에도 중요**하다는 데 공감했다.

차미령 인권센터장은 "**연구실은**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공간인 **동시에 구성원의 인권과 존엄성이 존중받아야 하는 일터이자 교육 현장**"이라며 "지난 3년간 축적한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**연구자들이 안심하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 연구실을 발굴하고 지원**하겠다"고 밝혔다.

한편, GIST 인권센터는 **2027년에도 '제4회 인권친화 연구실 공모전'을 개최**해 상호 존중과 소통을 바탕으로 한 연구실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.